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11, pp. 55-61,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1.055

간호대학생의 지역 중소병원 선택 예측요인

정효주[1], 채민정[2*]
[1]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Predictors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Hospitals Choice among Nursing Students

Hyo-Ju Jung[1], Min-Jeong Chae[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2]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선호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476명의 설문지를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역 중소병원을 선택한 경우는 66.0%였고,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은 고등학교 졸업지역, 학업성취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지역 중소병원으로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들은 중소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해야겠으며, 병원 관계자들은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지역, 중소병원, 취업,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the choice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hospitals by identifying the job preference,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18 to October 2018 for nursing students attending 4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llanam - do, and total of 47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 WIN 24.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66.0% of nursing students selected region local small and medium hospital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region small and medium hospitals were high school region, nursing school performance and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In order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of nursing students to the region small and medium hospitals, nursing educators should provide personalized career guidance to students who want to work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and hospital personnel should establish various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nd marketing strategies to raise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Key Words : Nursing Student, Region, Small and Medium Hospitals, Employment, Convergence

1. 서론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간호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1]. 공중보건장학의 제보 보안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상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1천

*Corresponding Author : Min-Jeong Chae(jhj127656@hanmail.net)
Received October 20, 2019
Revised November 8,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456명이었지만, 하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57명에 불과해[2] 간호 인력의 지역별 편차의 문제가 심했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은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로 확대되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질은 의료기관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잘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3],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간호사 인력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채 간호교육 및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4]. 즉, 간호대학의 정원 확대 정책은 지역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문제 해결에는 미비한 것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취업선호도는 구직자가 어떤 특징을 가진 직업을 선호하는 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5], 구인과 구직 과정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6].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해당 직종에 대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특성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5]. 좋은 간호 근무환경은 병원이 간호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7], 간호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간호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인 선택되는 시대로 들어섬에 따라[8],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취업 시 선호하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중소병원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간호사 3교대 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미국처럼 2교대 시스템을 도입하여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한 병원의 성공사례가 보고되어 있으며[9],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해 중소병원에 관한 진로교육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10]. 즉, 중소병원이 경쟁우위를 갖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과 간호협회가 노력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직업 및 구직조건에 대한 정보 및 인지도가 높으면 진로설정과 준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11]를 미루어 볼때, 간호대학생의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다면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간호학과 졸업생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한 시점과 졸업 후 첫 직장인 병원으로 취업한 시점의 지역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연구[12], 지역대학 간호 졸업생의 지역 병원 선택 여부 및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7]로, 이 두 연구 모두 연구대상이 졸업생이거나, 취업하는 병원도 지역내 병원으로 정하여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포함하여 중소병원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선호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원 취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여 중소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특화된 진로 프로그램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은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 및 확보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선호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원 취업 선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4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유의 수준 .05, 검정력.90에서 지역 병원 선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7]를 토대로 가장 낮은 교차비값 1.44를 기준으로 최소 392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추정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소병원 선택 여부로, 중소병원이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100~300병

상 미만의 병원을 말한다. 중소병원에 취업을 희망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1, 원하지 않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중소병원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2.3.1 취업선호도

취업선호도는 Bang et al.[13]사용한 직업평가 기준 14문항과 Park과 Cho[14]의 연구의 진로희망 기관의 선택 요소 15문항을 간호학 교수 3인과 간호대학생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점검한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까지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선택 시 그 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34였다.

2.3.2 중소병원 인지도

중소병원 인지도는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모른다' 1점에서 '매우 잘 안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장에게 연구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하여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48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후에 불충분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하고 총 476명(98.1%)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5분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의 이점과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후에도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소병원 선택 여부,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따른 지역 중소병원 선택 여부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대부분 여성(87.6%)이었고, 학업성취도는 3.5이상이 53.2%, 임상실습 경험이 있음은 53.4%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지역은 광주와 전남인 경우가 대부분(84.7%)이었으며, 중소병원에 취업을 하겠다는 경우는 66.0%로 나타났다. 취업선호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7±0.44점이었고,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8±0.87점이었다.

3.2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따른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차이

일반적 특성,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따른 중소병원 선택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χ^2=4.45, p=.035) 학업성취도(χ^2=10.87, p=.001), 고등학교 졸업 지역(χ^2=24.71, p=.〈001), 중소병원 인지도(t=-2.62,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3.3 지역 중소병원 선택 예측요인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 시 중소병원 선택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졸업 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소병원 선

택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졸업지역,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였다. Table 3. 교차비(odds ratio)를 통하여 각 변수가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3.5점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그 미만인 경우 중소병원 선택을 2.01배 많았으며(OR=2.01, *P*=.001),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이 광주·전남인 경우가 타 지역인 경우에 비하여 중소병원 선택이 2.6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OR=2.63, *P*=.001).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1점 증가할 때 2.34배씩 중소병원을 선택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2.34,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in the region, and Job preferences ***(N=4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59(12.4%)	
	Female	417(87.6%)	
Nursing school performance	≥3.5	253(53.2%)	
	<3.5	223(46.8%)	
Practical experience	No	222(46.6%)	
	Yes	254(53.4%)	
High school region	Same with nursing school region	403(84.7%)	
	Different from nursing school region	73(15.3%)	
Choosing a region small and medium hospital employment	No	162(34.0%)	
	Yes	314(66.0%)	
Job preferences			4.07±0.44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2.98±0.87

Table 2. Difference in Regional Small and Medium Hospital Cho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in the Region, and Job Preferences ***(N=4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gional(small & medium) hospital		x^2 or t	*p*
		No(n=160) n(%) or M±SD	Yes(n=316) n(%) or M±SD		
Gender	Male	27(45.8%)	32(54.2%)	4.45	.035
	Female	133(31.9%)	284(68.1%)		
Nursing school performance	≥3.5	58(26.0%)	165((74.0%)	10.87	.001
	<3.5	102(40.3%)	151(59.7%)		
Practical experience	No	82(36.9%)	140(63.1%)	2.05	.151
	Yes	78(30.7%)	176(69.3%)		
High school region	Same with nursing school region	117(29.0%)	286(71.0%)	24.71	<.001
	Different from nursing school region	43(58.9%)	30(41.1%)		
Job preferences		4.11±0.48	4.05±0.42	1.25	.211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2.66±0.99	3.14±0.75	−5.37	<.001

Table 3. Predictors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Hospital Choice

(N=4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ß	SE	Odds Ratio	95%CI	*p*
Gender	Male	−0.62	0.32	0.54	0.29~1.01	.053
	Female			1		
Nursing school performance	〈3.5	0.72	0.22	2.01	1.33~3.17	.001
	≥3.5			1		
High school region	Same with nursing school region	0.97	0.29	2.63	1.51~4.60	.001
	Different from nursing school region			1		
Recognition of small and medium hospitals		0.87	0.90	2.34	0.41~13.85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중소병원 취업을 선택한 경우는 66.0%였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간호대학 졸업생이 동일한 지역 병원을 선택한 경우는 86.3%[7],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에서, 대학과 동일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간호졸업생이 69.2%로 나타난 것[12]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선행연구는 모두 간호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학과 저학년부터 임상실습을 경험한 고학년까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를 의미하는 진로정체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며[15], 임상실습 전인 저학년보다 임상실습 후인 고학년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결과[16]를 미루어 볼 때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에는 막연한 전공 및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임상 실습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취업 방향도 확실히 정해지지만, 저학년은 아직 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취업 선택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대한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다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지역 중소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약 2.63배 정도 높았다. 이는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여부가 동일한 지역 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7]와 유사하다. 영국에서는 64%의 간호사가 자신이 교육을 받았던 지역에 남아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17], 미국에서도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100마일 이내의 지역병원에 취업한 경우가 66.8%로 나타나[18] 국외의 연구들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하면 주거비 및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역에 남아 취업을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대학 입학 전형 중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전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 인원을 확대 전형으로 실시되는 간호학과 모집인원을 확대 실시한다면 지역 우수 인재의 지역 이탈 현상 방지뿐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에서는 그들이 소속된 지역사회의 중소병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병원의 간호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해야겠다.

학업성취도가 3.5미만인 경우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 지역 병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7], 학력 수준이 높은 졸업생들은 지역 간 이동을 많이 하며[19], 명성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소수의 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들에게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8]는 결과들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지역 중소병원에 취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학교에서는 교과과정과 교과 외 과정에서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빈도

를 높이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 임상현장의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대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지역의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전 있는 중소병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각 지역의 간호단체를 주축으로 우수 중소병원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지역의 우수 중소병원을 적극 소개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병원 취업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을 소개하고, 지역중소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취업선호도는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선호도는 직업결정요인 및 취업 성과 등과 연관된다고 하였으나[6,12], 본 연구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간호사에게 급여 요인뿐만 아니라 간호사 확보 수준, 승진 시 소요 기간 등의 근무환경이 지방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한다[8]. 따라서 중소병원은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여 병원의 긍정적 인지도를 상승시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병원 선택의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 및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이 지역 중소병원을 선택 시 고등학교 졸업 지역, 학업성취도,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지역 중소병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자들은 중소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해야겠으며, 병원 관계자들은 중소병원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간호대학생의 지역의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 인지도에 관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미흡하므로, 추후 개념분석 및 질적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선호도 및 중소병원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도구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지역 중소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반복 연구 및 중소병원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K. O. Park & J. K. Kim. (2019). A study of desired work condition of nurses in small-medium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5(1)*, 1-13. DOI : 10.11111/jkana.2019.25.1.1

[2] H. G. Seo. (2019). *Disparities in medical personnel between regions lead to serious and lack of essential medical services.*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3134400017

[3] J. Y. Hong, J. M. Chae, M. R. Song & E. M. Kim. (2017). A utilization strategy of nursing staff by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nurse staffing level of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162-170. DOI : 10.5762/KAIS.2017.18.8.162

[4] J. T. Lee (2019). *Nursing manpower supply problem, manpower concerns first.* Medical Newspaper.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017

[5] H. J. Yoo, E. S. Park, K. T. Oh & W. H. Kim. (2016). The determinants of youth job preference chan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1)*, 1-19.

[6] Y. B. Park (2017). Classification of college students' job preference types and influence analysis of individual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3)*, 1-27.

[7] E. Y. Kim & H. H. Cho. (2018).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hoices of local hospitals among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3)*, 202-210. DOI : 10.11111/jkana.2018.24.3.202

[8] Y. K. Ko, B. H. Park & J. I. Ryu. (2018). Hospital preferences of Korean nurses using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4(2)*, 107-128.

[9] K. S. Choi. (2019). Weighted nursing staff, two shifts are breathtaking?. The Korean Doctor's Weekly.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70

[10] K. S. Chung. (2017). *Outstanding hospitals in our region employment fair.* Nurse News.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18&idx=22224&intPage=2

[11] H. D. Kim (2014). Investigating predictors for job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self-esteem & future career informa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6)*, 81-96.

[12] H. J. Yoon & S. H. Cho. (2017). Geographic mobility and related factors among newly graduated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3)*, 353-362. DOI : 10.5977/jkasne.2017.23.3.353

[13] K. S. Bang, M. H. Jun, H. S. Kim, H. M. Son, J. H. Kang, S. J. Yu, M. K. Kwon & J. S. Kim. (2009).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nursing and future caree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22-31.

[14] S. K. Park & K. M. Cho (2016). Clinical career preferences and associ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22(1)*, 107-122.

[15]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16] S. O. Ki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201-219. DOI : 10.5977/jkasne.2016.22.2.210

[17] S. Robinsons, T. Murrells & P. Griffiths (2008). Investigating the dynamics of nurse migration in early career: a longitudinal questionnaire survey of variation in regional retention of diploma qualifiers in Engl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7)*, 1064-1080. DOI : 10.1016/j.ijnurstu.2007.07.001

[18] C. T. Kovner, S. P. Corcoran & C. S. Brewer (2011). The relative geographic immobility of new registered nurse calls for new strategies to augment that workforce. *Health Affair, 30(12)*, 2293-2300. DOI : 10.1377/hlthaff.2011.0108

[19] J. A. Groen (2004). The effect of college location on migration of college educated labor. *Journal of Econometrics, 121(1-2)*, 125-142. DOI : 10.1016/j.jeconom.2003.10.002

[20] J. Y. Ryu & J. S. Yang. (2015. October). *Preference of employment of local college students and intention of employ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RIVET Issue Brief, 86.

채 민 정 (Min-Jeong Chae) [정회원]

· 2015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응급간호
· E-Mail : minjung0960@hanmail.net

정 효 주 (Hyo-Ju Jung) [정회원]

· 2015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질적연구
· E-Mail : jhj127656@hanmail.net